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의 진화를 꿈꾸다

실험적인 무대 '판소리 다섯바탕',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 올해 눈여겨 봐야

오는 29일 개막을 목전에 둔 2016년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반으로 한 판소리의 진화를 꿈꾼다.

여기에는 판소리가 중심에 서서 세계음악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리드해 나가는지 그 가능성을 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소리축제는 한국적인 전통음악 장르인 판소리를 모던하고 현대적인 공연예술로 단장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험적인 무대 '판소리 다섯바탕',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은 올해 눈여겨 봐야할 공연들이다.

다섯바탕은 창자의 쇼맨십과 무대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판소리 감상법

을 제시한다. 이는 소리꾼의 멋은 고스란히 살아 있으면서 영상·자막·무대는 첨단인 세련된 공연장으로 꾸민다. 올해 판소리 장르에 출연하는 최고의 명창, 차세대 소리꾼들의 면면은 축제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창곡의 별 왕기석을 비롯해 가장 기교 있는 소리 경지에 오른 박지훈과 임현빈, 완숙을 기다리는 패기 서정민, 판소리는 연륜의 예술임을 입증할 김명숙, 판소리 무대를 패션쇼 런웨이로 바꿔 놓을 김선미·김찬미·양은희·원진주·정수인이 각기 다른 소리 무대를 통해 한국전통음악 판소리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편백나무숲의 정취와 더불어 쾌기있는 젊은 소리꾼의 재기발

랄한 무대도 주목할 만하다. 고른 기량과 정확한 사설이 특징인 김나니, 묵직하고 납자다운 소리 백현호, 젊은 여창이 들려주는 힘있는 적벽가를 들려줄 정세연, 미산제 소리의 차세대 주자 이재학, 공력있는 소리와 발성의 소유자 정상희가 출연해 판소리의 모던한 실험에 의미를 더한다.

박재천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장은 "세상의 모든 소리 중 판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화두이자 우선순위이며, 이는 여타의 다른 소리와 비교·경쟁 대상이 아닌 상생의 문화이다"라고 강조했다.

제15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9월 29일~10월 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군산시립예술단,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 개최

군산시립예술단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군산중앙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고 공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곡과 악기에 대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해설로 클래식을 이해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중창을 시작으로 'Minuet No.2', 'Sound of Music', 'Over the Rainbow' 등 10여곡을 연주하고 피날레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 연주한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클래식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와 건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별 맞춤형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스쿨콘서트'는 오는 28일 동원중, 10월 6일 제일중, 10월 28일 군산상고, 12월 28일 나포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위 작품은 귀향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고향과 메마른 삶의 세상 및 어지럽고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투영한다.

9월 셋째 주 '연인과 독재자'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납치실화 다룬

전주영화제작소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22일 셋째 주 상영작으로 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커플 신상옥 감독과 여배우 최은희의 납치 실화 <연인과 독재자>를 상영한다.

제6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32회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연인과 독재자>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미스터리 신상옥, 최은희 납치 스캔들을 담은 작품이다. /정해은 기자

영화는 납치 이유에서 과정, 탈출까지 사건의 전말을 다루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신상옥과의 운명적 재회 이후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썬더볼 공개된 적 없었던 북한에서의 활동이 담겨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ff.or.kr> 문의 231-3377.



천년의 고귀한 숨결을 품고 아름답게 물들인 오방색의 한지로 한결 한결 겹겹이 발라 만든 무장상자 오색한지공예전시회로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지공예 김혜옥 작가, 무장상자 오색한지 공예전

24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서

한지공예 김혜옥 작가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무장상자 오색한지공예전시회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은 천년의 고귀한 숨결을 품고 아름답게 물들인 오방색의 한지로 한결 한결 겹겹이 발라 만든 무장상자 오색한지공예전시회로 전통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인전 주인공인 김혜옥 작가는 꾸준한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화관 및 노인 복지화관 등에서 한지공예 강의를 통해 우리 전통의 명맥을 잇고 고창의 멋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김혜옥 작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갈수록 소중한 우리의 것이 잊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혼과 삶을 담아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에 최선을 다하고

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장상자를 세계적인 향토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고유한 고창의 전통공예품으로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득 담긴 무장상자와 오색한지 공예는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창의 한국적인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고창 미술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에게 창작 동기부여와 지역주민에게 미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문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영주 작가 개인전 개최

오늘부터 26일까지 '귀향' 주제로

권영주 작가가 21~26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귀향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고향과 메마른 삶의 세상 및 어지럽고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질인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투영한다. 이는 단순히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고유의 성질, 순수한 상태로서의 재생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그녀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고향마을에 대한 <향수>,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미중>, 예쁜 꽃무늬 옷을 곱게 입은 여인의 모습이 담긴 <귀향>, 동근 달이 뜬 밤하늘과 담장 위의 아름다운 꽃나무 그리고 정원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닭들의 모습을 그린 <정원> 등의 작품에서 마음 속 고향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차분한 색채로 담담하게 표현해낸다.

작가는 작품에 활용된 재료 금박과 은박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투사되는 시각, 표현 방식을 통해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는 보는 사람들이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희미한 빛에서 무언가 소중한 의미와 감동을 찾고자하는 감수성의 본능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권영주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전라북도미술대전 최우수상, 중국심양예술박람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무등미술대전 우수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미스터리 신상옥, 최은희 납치 스캔들을 담았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21일>

▷쥐띠
4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60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은 운이 아니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소띠
49년생: 공식적인 일은 오히려 사적인 일은 불리한 운.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여라.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놀리거나 정신적으로 험담 운이니 거래, 원형, 개입은 불리.
74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인해 곤란.
86년생: 무리한 욕심은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게 하니 주의.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
63년생: 계획적으로 타인을 대하면 상대가 알게 되니 주의하라.
75년생: 매사 물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성서면 대처하라.
87년생: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 신경전이 예상되는 운.

▷용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나중에 편안해지는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사람의 편을 들면 상황이 악화.
65년생: 손재주가 따르는 운이니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밝혀 좋은 결실.

▷말띠
54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모일이나 식사위생을 하라.
66년생: 매사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8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작은 노력을 해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67년생: 동료와 일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79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
91년생: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운이다.

▷원숭이띠
55년생: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68년생: 지나친 의욕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
80년생: 자신의 목표를 헤아릴 일을 맞아라.
92년생: 정신적으로 방향할 수 있는 운.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기나 투기는 불리한 운이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해라.
81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운.
93년생: 사소한 거짓말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운이니 조심하라.

▷개띠
45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
58년생: 사람들과 얽힐수록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82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니 새로운 시작은 금물.

▷돼지띠
47년생: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금적 외출은 삼가라.
59년생: 계획하지 않은 일은 진행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
83년생: 나머지 10퍼센트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 방식은 금물이다.